

# KS 불패신화 호랑이 'V11'...광주가 행복했다

## 리뷰 2017

### ⑥ KIA 한국시리즈 우승

김선빈·안치홍 키스톤 콤비

SK와 트레이드 '신의 한 수'

175일 역대 최장기간 1위

양현종·헥터 '20승 듀오'

야구로 흥겨웠던 2017년, KIA 타이거즈가 2009년에 이어 다시 한번 챔피언으로 우뚝 서면서 광주를 웃게 했다.

KIA는 올 시즌을 앞두고 '100억 사나이' 최형우를 영입하면서 타선의 진용을 새로 짰다. 나지완도 FA로 타이거즈에 잔류하면서 막강해진 타선의 힘에, 김선빈과 안치홍 '키스톤 콤비'가 예비역이 되어 돌아오면서 묵직한 내야가 완성됐다. 또 KIA는 '호자 외국인 선수'로 사랑을 받은 브렛 필을 과감히 교체하고, '신입 외국인 선수' 베나디나를 중견수 자리에 세우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예상은 했던 상승세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뜨거운 타격을 앞세워 초반부터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건 KIA는 4월 12일 공동 1위에 오르며 'V11'의 서막을 열었다. 4월 14일 단독 1위로 치고 오른 KIA는 이후 10월 3일 시즌 최종전까지 단 한번도 '1위'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정규시즌 우승팀이 됐다. 장장 175일에 걸친 역대 최장기간 1위 행진이었다.

4월 7일 단행한 SK와의 트레이드가 '신의 한 수'가 됐다. KIA는 포수 이흥규·이성우, 외야수 노수광·윤정우를 내주고 SK로부터 포수 김민식, 외야수 이명기 그리고 내야수 최정민·노관현을 받아왔다.

트레이드의 핵심이었던 김민식은 김기태 감독의 바람대로 센터라인의 중심을 잡으면서 수비 강화를 이뤘다. 이명기는 '굴러온 복덩이'가 됐다. 큰 기대를 받지 못했던 이명기는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노도장을 찍으면서 어느 순간 1위 팀의 1번 타자가 됐다.

이명기를 시작으로 9번 김선빈까지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이 구축되면서 KIA의

뜨거운 시즌이 흘러갔다. KIA의 다이너마이트 타선은 미국 메이저리그를 뛰어넘는 '8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세계 기록까지 만들어냈다.

매서운 창 뒤에는 '20승 듀오'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다. 헥터와 양현종은 부지런히 승리를 수확하면서 1985년 삼성 김시진, 김일용 이후 32년 만에 '동반 20승'의 대기록을 작성했다. 양현종의 20승은 1995년 이상훈 이후 첫 토종 선발 20승이기도 했다.

새로운 스타도 탄생했다. 지난 2014시즌이 끝난 뒤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KIA의 지명을 받았던 임기영이 새 팀에서의 첫 시즌을 맞았다. 그는 두 번의 완봉승 포함 8승을 기록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도 특유의 배짱투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임기영은 마운드의 '샷별'이 됐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트레이드 카드가 적중했다. 넥센에서 영입한 김세현이 뒷문 단속에 성공하면서 팀의 우승을 지켰다.

정규시즌 1위 KIA의 기세는 한국시리즈까지 이어졌다. 1차전을 두산에 내주기는 했지만 KIA는 양현종의 완봉승으로 분위기를 살린 뒤,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으며 2017시즌의 주인공이 됐다.

뜨거웠던 올 시즌 챔피언스필드를 찾은 이는 102만 4830명(평균관중 1만4234명). 광주 시민들은 경이로운 100만 관중기록을 작성하며 타이거즈의 질주에 화답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75일간 2017 정규시즌 1위 자리를 지킨 KIA 타이거즈가 1패 뒤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 불패신화를 이으며 8년 만에 통합우승을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동구 주민자치협 “광역의원 정수 축소 반대”

“지역 특성 무시한 처사”... 주민대책위 결성 결의문 발표

1석 감소 행안부 확정안 반발... 광주시 다음달 5일 공청회

광주시 동구 주민자치협의회가 '동구의 광역의원 정수 축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동구의 광역의원 1명을 줄이고 전남에선 함평·강진·장흥·신안·보성·장흥지역 도의원 1명씩 총 6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지역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도 내년 1월 5일 시청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 의견수렴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24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주민

대책위는 지난 22일 광주 동구청 상화실에서 결성식을 하고 "동구 광역의원 정수 축소 움직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에 따르면 동구의 시의원 1석이 준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하한선 요건에 동구 광역의원 2개 선거구 모두 미달하지 않는데도 1석을 줄이는 것은 지역 특성을 무시한 처사"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에만 맞춰 획일적으로 조정하는 행안부 안을 즉각 폐기하고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시·도의원 정수조정 안이 국회에서 다

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광주시 동구의 광역의원이 1명 감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정수 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구와 국회의원 지역구 변동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한 후 공직선거법 개정에 들어간다.

이 안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광산의 광주시의원이 1명 늘고 동구는 1명이 줄어든다. 이 안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현재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기초의원 선거구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해남 무화과즙 등 40개 업체

### 114개 제품 도지사 품질인증

해남 무화과즙 등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114개 제품이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다.

전남도는 해남 무화과즙 등 40개 업체, 114개 제품을 지역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부터 품질인증을 원하는 농어업인의 농수산물과 가공업체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무원으로 평가반을 구성해 심사했다.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현재 280개 업체, 1015개 품목이 선정됐다. 백화점 입점, 홈쇼핑 진입 등 신규시장 개척과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와 전남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에서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제공>

## 전남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환경 개선 추진

### 전남비정규직센터-도-고용부

### 공동주택 치우개선 업무 협약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전남 지역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전남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는 지난 8월 전남 19개 시군 소재 100여 단지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 실태조사'〈광주일보 11월17일자 5면〉를 했다.

조사 결과, 90% 이상의 공동주택이 내부 근로자를 외부 용역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아파트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휴게공간 등 복지환경이 열악하고,

경비·청소 업무 외에 입주민들의 사적 지시와 갑질 등으로 힘들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업무 협조를 요청,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등 향후 공동주택 근로자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자 지원정책 안내, 근로기준법 교육 등 협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협약에 참여한 아파트는 정문에 '상호 존중 행복살다'라는 현판을 설치, 입주민에게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기로 했다.

박정훈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전남지역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전남도 87건 사전컨설팅 감사 79억 절감

### 우수사례 평가 대통령상

전남도는 올해 87건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7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2건(예산절감 11억원)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전남도는 전담인력을 늘려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고, 성과가 알려지면서 시군의 신청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전남도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제1회 사전 컨설팅 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전 컨설팅 감사 우수사례 평가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

지 전국 시·도에서 실시한 1500여 사례 중 자체 검토를 거쳐 34건을 추천 뒤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4건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전남도의 사례는 한 기초단체가 연륙교 공사상수도 공사 계약 과정에서 사업부서·계약부서 간 이견을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해결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조기 발주해 상수도 공급시기를 2년이상 단축, 3600여 석 주민 불편을 덜어주고 예산도 약 15억원 절감했다.

방곡길 전남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 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도 절감했다"며 "내년에도 내실있게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평면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